

제2217호  
2024.3.24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하늘꽃 마음꽃

\*발행: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Tel. 051)629-8740 \*Fax. 051)629-8749 \*편집실: 48317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32번길21 청소년사목국 하늘꽃 마음꽃 편집실

## 십자가의 길

시작 성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1절)

### 시작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화? 억울? 후회?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단지구 임성한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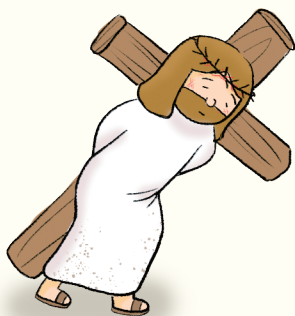


###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과 지내면서 혼날 일,  
혹은 귀중들을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친구에게 떠넘기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는 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복산지구 김동근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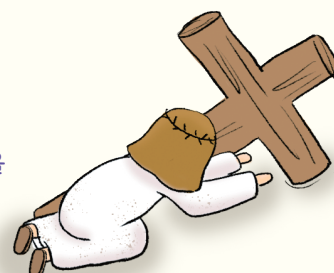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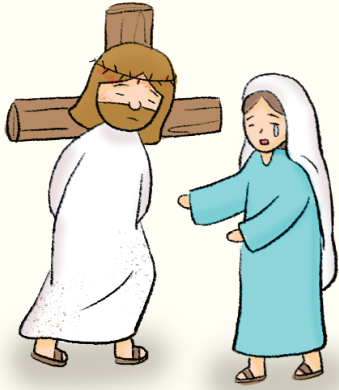
###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이신 예수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것을 항상 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투정 부리고 짜증을 쉽게 낸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마음을 주시어 모든 걸 힘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중앙지구 이종민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모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픔은 성모님의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 위의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천지구 김영웅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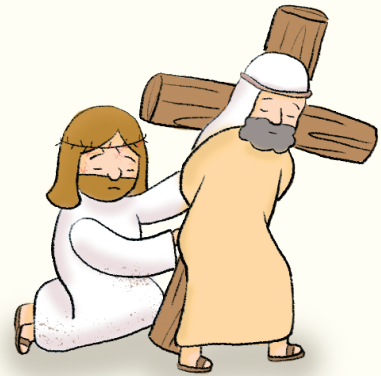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차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는 남을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 동생들을 돌볼 수도 있었고,  
같은 반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었고, 부모님의 설거지를 도와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산지구 김해인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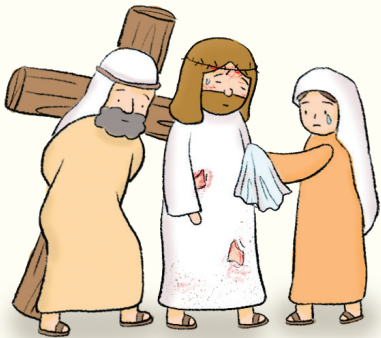


#### 제6차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베로니카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려고 다가갔어요. 군인들은 그녀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막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베로니카의 사랑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베로니카처럼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이웃들의 아픔에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삼계지구 성경오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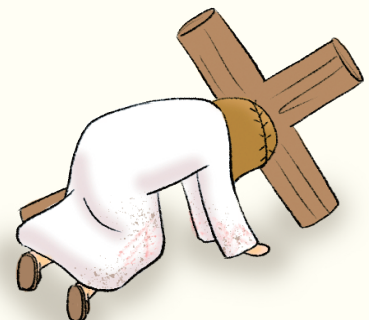


#### 제7차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군사들의 채찍질로 상처투성이였고,  
무릎은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을 만큼 아파 왔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힘든 몸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힘을 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 또한 그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할게요. (아음지구 강호성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려움에도 당신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챙기시는 배려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품은 세상을 다 껴안을 만큼 넉넉하기에, 그 품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예수님 맑은 마음을 주세요. (우동지구 이동현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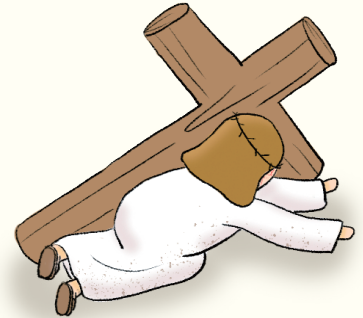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넘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기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지 않고,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가야지구 김진호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0차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수많은 매질, 세 번의 넘어짐과 일어섬,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옷 벗김을 당하는 치욕까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시간은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 나를 욕할 때 쉽게 짜증내며 발끈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금정지구 조현우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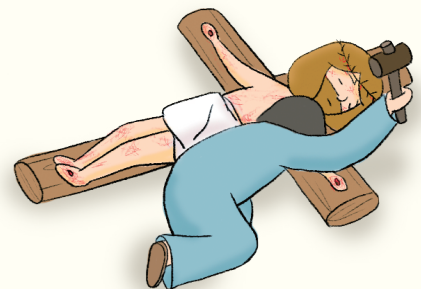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복산·야음지구 이광우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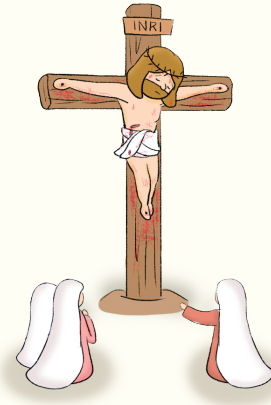


##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와 선행을 자주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중앙지구 김기욱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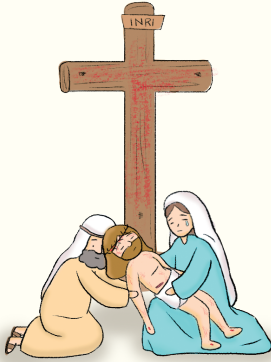


## 제13차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삼계지구 송재현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두)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차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두)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이 끝났어요.  
우리가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도 끝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끝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끝이 나도 말이에요.  
예수님, 착한 제가 가끔 착하지 못할 때, 가끔 착하고 싶지 않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끔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가야지구 정용진 신부님)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기도한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 마침 기도

교황님의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친다.  
(2024년 3월 교황님의 지향: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선교 열정으로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십자가의 길

마침 성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2절)

3/3  
당첨자

이기대성당 2학년 정지연(미카엘라), 남목성당 3학년 박슬아(올리비아), 좌동성당 4학년 정한비(리노),  
성가정성당 5학년 허이안(다블뤼안토니오), 호계성당 6학년 홍은설(아네스)